

[박물관의 도시]

‘북국 도자기의 수부’ —길림도자기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전시실 일각

‘북국 도자기의 수부’ — 길림시의 도자기박물관이 개방되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길림시 강남공원에 위치한 길림도자기박물관은 길림시 도자기 발전 로정을 주선으로 실물, 사진과 문자를 결부하여 길림지역의 유구한 도자기 문화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길림시에 ‘북국 도자기의 수부’라는 미명이 붙은 데는 유래가 있는데 길림시 향요진 (缸窑镇)에서 시작되었다. 《영길현지》(永吉县志), 《향요진지》(缸窑镇志)의 기록에 따르면 강희원년 즉 1662년에 산서 장인 조암룡이 계랑구 (지금의 길림시 룡담구 대구흙만족진 전요촌)에 와서 상등의 도자기 제조 원료인 흰 점토를 발견하고 첫 ‘만두요’ (馒头窑)를 만들며 가마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도자기 기예는 이때부터 길림땅에서 약동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구운 향아리는 품질이 좋아서 명성이 갈수록 높아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향아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향요진은 집집마다 도자기 만들기에 바쁘고 곳곳에서 가마불이

왕성히 타오르는 번영한 광경을 보였다. 향요진은 동북지역의 큰 도자기구 이장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고 길림시는 명성이 자자한 ‘북국 도자기의 수부’로 되었다. 1948년 초, 향요진에 도자기제조공장

이 섰다. 향요진 도자기제조공장에서 생산한 도자기는 국내시장에서 팔리는 외에 1964년 처음으로 국제시장에까지 수출되었는데 1964년에서 1985년 사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명 도자기들

[독자수기]

인생의 후반에 만난 사랑

본처가 병으로 60세도 못 넘기고 세상을 뜬 후 나는 산동성 연태시에서 한 녀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몇년 만에 그 녀성과 갈라지고 연태시를 떠나 내가 정년퇴직한 길림시에 돌아왔다. 그때 나는 75세였지만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따로 살 생각을 했다. 내가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세우자 자식들이 나에게 보모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마침 일가집 형님이 마음씨 착하고 신체도 건강한 녀성 한분을 나에게 극력 소개하였다. 74세라 나이가 좀 많았지만 만나보니 어쩐지 첫인상이 괜찮고 일가집 형님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 나는 서로 친구로 사귀어보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사귀어보니 천만다행히 그녀는 형님이 소개한 비와 똑같이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관심해주었고 친척들과도 정을 주고받으며 찢다짚은 일년 사이에 엄청 친밀한 관계를 건립하였다. 그녀는 나의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와 화기애애하게 전화편지를 주고 자주 래왕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로년에 찾아온 행복의 꽃을 피워갔다. 그녀는 이제 친구가 아니고 만년을 끝까지 같이 살기로 약속한 나의 안해

가 되었다. 안해는 늘 소탈하고 겸손하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고 당신의 자식들이 나를 친엄마처럼 뜨겁게 대해주니 나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관심하게 된 거예요”, “당신이 날 끔찍히 사랑해주니 나도 늘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마련이죠.”라며 안해는 언제나 공로를 대방에 돌렸고 자신이 잘했다고 뽐낼 때가 종래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4년 동안 한번도 화낼 일이 없었고 거친 말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낳은 애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이 키운 애들이 가까이 살면서 나를 친엄마처럼 존중하고 관심해주니 내 마음이 정말 든든해요. 늙어서 당신을 만나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안해의 맘속에서 우리나라 진담이다. 고독하게 혼자 살던 안해도 나를 만나 얼굴의 주름살이 펴지고 나와 애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즐거운 코노래가 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남들도 나의 안해를 만나면 “좋은령감 만나서 많이 젊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며 언제나 부러운 눈길

을 보내었다. “늙어서 미쳤다고 늙은령감 치성하며 살겠나?! 난 령감 안 얻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해!”라고 하던 친구들도 다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나의 안해는 돈 욕심이 없고 나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쓴다. 옷을 씻을 때 나의 호주머니에서 현금이 나와도 일한 한푼 다치지 않았고 내가 친구들을 식당에 청하여 식사할 때에도 안해는 언제나 자기 돈으로 나 먼저 뛰여가 결산하곤 했으며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나 맘에 들어하는 물건이라면 아무리 비싸도 돈을 아끼지 않고 샀다. 내가 늘 사지 못하게 말리기에 그녀는 흔히 나 몰래 혼자 가서 사곤 했다. 나의 안해는 몇년전에 연태에서 나와 갈라진 그 녀성과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세상에 이런 녀인도 있나!’ 하며 탄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안해는 “늙어서 만난 부부들이 경제문제로 늘 아웅다웅 다투면 꼭 오래 못 가고 갈라지더라구요. 제미나 게 살려면 절대 이리저리 말아야죠.”라고 말한다. 나의 안해는 내가 하는 일을 언제나 힘껏 지지한다. 내가 길림시조 선족로인협회의 내부간행물인 《새아리랑》잡지의 편집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문장을 쓰거나 남의 원고를 수개할 때면 절대로 나에게 다른 일을 시키지 않았고 내가 하던 일이 끝나면 꼭 한번 읽어보고 타자할 때 철자 틀린 곳을 발견하면 제때에 알려주고 독후감도 이야기해준다. 그러나 나의 건강을 녀려해 밤 10시는 절대 초과하지 못하게 엄격히 감독

품질 모두 전국에 명성을 떨쳤다. 300여년이 지난 오늘, 지난날 향요진 도자기 제조 장인의 도자기 기예는 길림시의 귀중한 수공 기예와 문화적 재부로 남았다. 2007년, 길림시 ‘도자기 전통 기예’가 길림성 제1진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올랐다. 2019년, 길림시 룡담구 대구흙만족진은 중국도자기협회로부터 ‘도자기 소도시’로 명명되었고 2020년에는 길림성정부로부터 ‘도자기 소도시’로 명명되었다. 길림시는 ‘도자기 전통 기예’라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실현하고 ‘박물관의 도시’로서의 길림의 함의를 풍부히 하며 더욱 많은 도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남공원에 ‘북국 도자기의 수부’-길림도자기박물관을 건설, 개관하였다.

길림도자기박물관은 원래 길림시 강남구정부와 길림시원림센터의 사무청사로서 사용면적이 1,500평방미터에 달한다. 2024년 9월초에 대외에 개방된 박물관에는 약 600여점의 도자기공예 정품, 길림시의 풍부한 점토자원이 전시되어있으며 도자기 예술, 도자기 제작 등 구역이 설치되어있어 시민들에게 도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 도자기 역사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전시장은 중국 도자기의 기원, 길림 도자기의 기원, 길림의 유명한 도자기 옛진 룡담구 향요진 도자기 굽는 기예의 전승, 그리고 북국 도자기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후 도자기 문화관광산업의 융합 발전을 실현하는 모든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청동기시대 길림지역 ‘서단산 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기 사진을 전시하였는데 그중에는 ‘서단산문화’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도자기도 있으며 부여, 고구려, 발해 시기의 도자기 사진도 있다. 교류전시장에는 현재 국내 유일의 본토 제작 도편종 (陶编钟)도 전시되어있다. 길림도자기박물관 개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8시 반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 차영국기자

■ 송해문

한다. 한번은 나에게 이런 물음을 제기했다. “당신이 발견한 나의 결합은 뭐죠?” “발견한 게 없소.”라고 대답하자 “거짓말, 결합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해줘야 제때에 고칠 수 있잖아요. 빨리 말해봐요.”라고 재촉했다. “닭알 속에서 빼 고르듯이 찾아본다면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살 때 당신은 늘 비싼 걸 골라서 사는데 그걸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하하, 80이 다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살아있을 때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걸 먹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을 사용하며 향수해야죠. 난 언제나 당신에게 비싸고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돈 아꼈다가 죽어서 관에 넣어 가겠나요?”라고 말한 안해는 〈있을 때 잘해〉란 노래를 흥얼거린다. 너무도 사랑스러워 한번 끌어안았더니 “아이고 행복해라! 부부간에 매일 한번씩 안아주면 건강에 좋대요. 매일 한번씩, 알았죠?”라고 애교를 댄다... 인생의 황혼시절에 우연히 만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언제나 서로 믿고 사랑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보람있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 량가 자식들의 지극한 관심과 존경도 받고 친척들과 친구들의 칭찬과 축복도 받으며 우리는 인생의 후반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다.

교하시, 봄같이 준비 작업 한창

우수 절기가 지나자 교하시 농업 부문은 신속히 행동하여 봄같이 준비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 올해 량곡 생산을 위해 좋은 국면을 조성했다. 올해 교하시의 량곡작물 파종면적이 174만 8,000무로 확정된 가운데 옥수수, 콩, 벼 등 3대 주요 작물의 종자 및 부대 화학비료, 농약 모두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대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농가가 농기구 817대 (세트)를 새로 구매하도록 도와주어 농기계 보유량이 3만 3,000여대에 달하도록 함으로써 봄철 농업생산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가짜 농자재 상품에 대한 타격 강도를 높였다. 지금까지 교하시 농업 부문은 연인수로 30여명의 집법일

군을 출동시켜 50여개 상점을 검사하고 고지서, 선전서 등을 5,000여건 발급했다. 또한 교하유매체, 위챗그룹을 통해 제때에 ‘농자재 구매 주의사항’을 발표하여 농민들이 속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농업 신기술을 적극 추진하였다. 교하시 농업부문은 콩과 옥수수 띠모양 복합재배 기술을 혁신적으로 실시하고 보호성 경작 등 농업 신기술을 보급했다. 농업과학기술 전문가 써비스팀을 설립하고 기술지도와 기능훈련을 전개했다. 교하시 농업부문은 온라인 동영상 수업, 오프라인 단일 항목 지도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여러 향진의 농작물 재배 수요를 조

사함으로써 봄같이 생산의 과학성, 안전성을 실현했다. / 길림일보

오림향우회

고향마을 로인들에게 위문금 전달



오림향우회를 대표하여 리용맹 (좌 1)이 위문금 전달

3월 8일, 교하시 오림조선족향우회의민속촌로인협회의 3.8절 율놀이 행사장에는 길림시중심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용맹이 찾아왔다. 리용맹은 오림향우회를 대표하여 행사에 보태라고 현금 1,000원을 지원하고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향의 두 로인에게 각기 3,000원씩 위문금을 전달했다. 우의촌 김철선 서기와 로인협회 정만화 회장은 오림향우회의 가특한 선행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고향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오림향우회의 관심과 지원은 2021년부터 이어져왔다. 2021년, 리용맹은 우의촌의 림상호 전임 촌민위원회 주임으로부터 길림시에서 생활하는 본마을 리명신 가정의 생활에 큰 어

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 받고 ‘오림사람이 오림사람을 돕자’고 제안, 교하 오림향우회 위챗방에서 2만원 현금을 모금하여 리명신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이후 또 리명신의 둘째아들이 대학에 붙자 장학 (助學)금으로 5,000원을 지원했다. 오림향우회는 오림 출신 재북경향우들인 박영조, 최척환, 김영건과 재광주 향우 김경국, 재청도 향우 문철호, 재대련 향우 황천덕, 재길림 향우들인 리옥분, 김애자, 윤영옥, 리용맹 등 10여명 성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아름다운 선행은 주변으로부터 한결같은 호평을 받고 있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교하 조선족로인협회

게이트볼시합과 율놀이를 즐기는 하루



게이트볼시합을 하고 있는 교하시 민속촌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

3월 7일, 관광명승지 라법산 기슭에 자리잡은 교하시 민속촌조선족로인협회 30여명 회원들은 3.8절을 맞이하여 게이트볼시합과 전통 율놀이 등 활동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민속촌조선족로인협회 김옥순 회장의 소개에 따르면 교하시 민속촌 아빠트레는 조선족 80여가구가 입주해있다. / 문창호특약기자

3월 8일, 교하시 오림조선족향우회의민속촌로인협회 40여명 회원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촌활동실에서 3.8절을 맞이하였다. 정만화 회장의 사회하에 회원들은 문예공연, 전통 율놀이 등 오락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 우의촌 김철선 서기와 정만화 회장이 각기 500원씩 후원했다. / 문창호특약기자